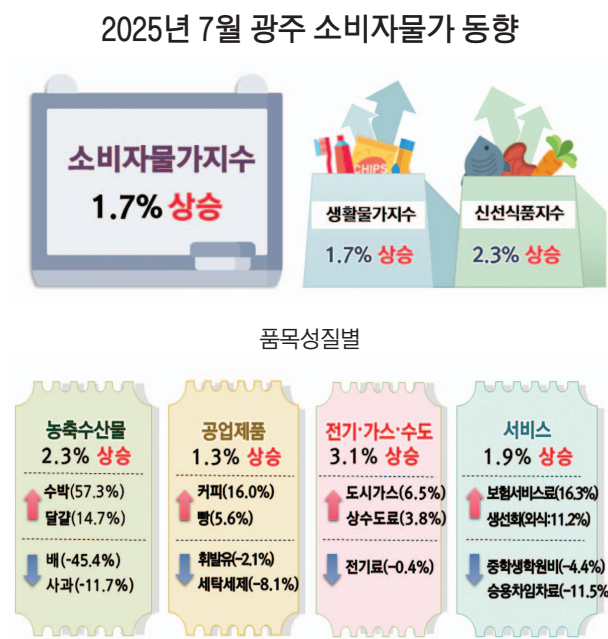


“농축수산물에 소비쿠폰 몰릴만”... 이상기후에 급등

ECONOMY

2025년 8월 6일 수요일



광주소비자가 1.7% 상승
5개월 연속 1%대 안정 불구
작황 부진 수박 57.3% 경중
고등어 18%·달걀 14.7% ↑

광주지역 소비자가 5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다만, 폭염·폭우 영향으로 수박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9 (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이에 따라 광주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3월 (1.9%)을 기점으로 5개월 연속 (4월 1.9%→5월 1.5%→6월 1.9%) 1% 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뛰었는데 식품은 2.9%, 식품이외는 1.1% 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신선어개와 신선채소는 각 9.5%, 3.4% 상승한 반면, 신선과실은 2.3% 하락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전년 동월과 견줘 2.3% 상승했다. 실제 수박의 경우 가장 높은 등락률을 기록했는데 1년 전과 비교해 57.3% 뛰었다.
폭염·폭우 영향으로 출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면서 빛어진 현상으로 풀이

된다.
또 고등어 18.0%, 달걀 14.7% 등도 경중 뛰었다.
7월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7.33 (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지난 6월 (2.2%)에 이어 두 달 연속 2% 대 상승률이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고, 식품은 3.2%, 식품이외는 1.8% 각 뛰었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0.2% 상승했다. 신선어개는 7.9%, 신선채소는 0.4% 각 상승한 반면, 신선과실은 5.5% 떨어졌다.
주요 등락품목을 보면 농축수산물 중 1년 전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품목은 갈치로 19.4% 올랐다. 또 고등어 11.8%, 돼지고기 5.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국광기술원-기술보증기금 혁신성장기업 육성 업무협약

한국광기술원은 5일 기술보증기금과 '혁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 및 기술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R&D·인프라·금융·네트워크 역량을 결합, 실질적인 기술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이전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기술보증이 필요한 기업 추천, 해당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및 종합 금융지원, 공동사업 발굴 등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기술수요처와 광기술원이 보유한 기술 간 연계를 통해 기술이전이 성사될 경우 기술중개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을 명시하고 '스마트 테크브릿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한 계약 체결로 행정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강점을 결합해 실질적인 창업 및 기술이전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망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수해 입은 함평천지전통시장서 윈스톱 지원 광주전남중기청·소진공 등 5개기관 운영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천지전통시장에서 '윈스톱 합동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광주·전남중기청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전남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로 함평천지전통시장은 41개, 인근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는 27개 점포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 기관은 함평천지전통시장을 찾아 내부를 청소하고 토사를 제거하는 등 복구지원에 동참했다.
전통시장 및 인근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피해복구에 필요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보증서 발급 지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금 및 4대 보험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등 정부정책을 안내했다.

박종찬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상인들이 일상에 복귀할 때까지 피해 현장에 광주·전남중기청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상주해 상담, 애로 해결 지원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침수피해와 관련해 다 지역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도 현장지원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피해로 '전 국민 소비쿠폰'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향후 시장이 정상화되면 유관기관 임·직원, 시민들이 방문에 소비 촉진활동을 협조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이날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살폈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속적으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5일 함평천지전통시장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삼성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카운터탑' 출시 세척시간 95분 최단·소비전력량 최저

삼성전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인 2025년형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카운터탑'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카운터탑은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식기세척기로, 설치나 이동이 간편하고 공간 활용도가 높다. 한 번에 6인분의 식기를 세척할 수 있어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2등급으로, 기존 제품보다 등급을 한 단계 높였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국내 6인용 식기세척기 중 소비 전력량이 가장 낮다. 세척 시간도 95분으로 동급 식기세척기 중 가장 짧고, 기존 제품 대비 물 사용량도 약 10% 줄었다. 에너지와 물 사용량은 크게 줄인 반면 기존 카운터탑의 차별화된 세척·건조 성능과 편의 기능은 그대로 적용했다.
상·하단 세척 날개가 회전하며 만드는



이중 입체 물살이 식기 앞뒷면을 꼼꼼하게 세척하고, 고온 직수로 기름 제거는 물론 식기를 99.999% 살균한다.
최종 행균 단계에서는 열풍건조 기능을 통해 남은 물방울을 말끔하게 제거하며, 이 외에도 75도의 고온수로 세척 없이도 젓병이나 유아 식기에 있는 대장균, 살모넬라 장염균, 리스테리아균 등 유해 세균을 99.999% 제거하는 젓병 살균코스나 자동 문 열림 기능 등을 지원한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신세계 본관 4층에 신규 오픈한 송지오퍼리 매장서 고객어 옷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가을 단장...여성 컨템포러리 확대

송지오퍼리 등 30개 브랜드 입점·리뉴얼

㈜광주신세계가 가을 맞이 새 단장에 한창이다.
MZ세대 뿐 아니라 가족 단위 등 전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신규 브랜드 입점부터 기존 매장 리뉴얼 단행까지 추진하며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8월 한달 간 총 30개의 브랜드를 리뉴얼하거나 새롭게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에서 만날 수 없었던 '송지오퍼리'와 '드파운드'를 유치, 처음으로 선보인다. 본관 4층 '송지오퍼리'는 1993년 런칭한 '송지오퍼리'의 여성라인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올해 신규 오픈을 기념해 10%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블록', '베네통', '일라

를 그라운드에서는 확장을 통해 '아틀리에슈' 제품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플레이스마트에서는 트립웨어 브랜드 '로우로우' 신규 오픈을 기념, 일부 제품에 대한 단독 할인과 핸들 그림 사은품을 증정한다.
'UFC', '스파이더', '언더아머' 등도 조만간 문을 열고 손님맞이에 나선다.
먹는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F&B 브랜드인 '부장제과', '어썸팍'과 지난 팝업 인기에 힘입어 '땅콩빵' 팝업스토어도 재진행 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트렌드를 반영해 전연령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를 신규 입점하고 리뉴얼 오픈을 준비했다"며 "차별화를 중점으로 새롭게 꾸며진 광주신세계를 만나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가전산업 안전워크업 지원 수해기업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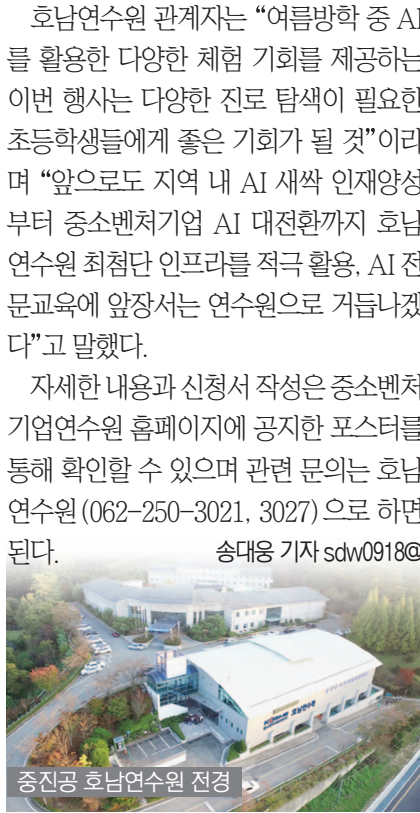
광주상의, 추진 방향·안전보건공단 연계방안 등 공유

광주상공회의소는 5일 청사 회의실에서 '2025년 가전산업 안전워크업 지원사업' 수해기업 간담회를 열고, 사업의 추진 방향과 안전설비 지원 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연계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년 지역혁신프로젝트-가전내일청년 특화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역 가전기업이 청년 채용 이후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안정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안전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수해기업에 대한 안전진단 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병행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공단 전문가들이 각 기업의 작업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 설비 지원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까지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이 구성돼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가전기업 11개사가 참석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실무 전문가들도 함께해 사업 취지와 공단 연계 절차, 설비 선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지현 ㈜원일 대표는 "작업장에 팬 하나, 덕트 하나 더 설치한

다고 해 모든 유해요소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 작은 변화가 직원들에게 '회사가 우리 안전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지원사업은 안전 설비 교체를 넘어 우리 현장을 돌아보고, 더 나은 작업환경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고준호 ㈜두모 전무이사는 "우리 현장은 반복 작업이 많고 기계 열로 인해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도 잦다 보니 늘 직원들 안전이 걱정이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그간 검토해오던 작업환경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회사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광주상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 품목과 추진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시체캠캠프' 참가자 모집 중진공 호남연수원, 7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7일까지 광주·전남·전북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미래 ON AI 체험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19~20일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광주 지역특화산업인 AI에 대한 초등학교생의 관심 유발과 적극적인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해 호남연수원 교육 인프라를 대국민 개방해 추진된다.
캠프에서는 AI와 IoT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도구를 활용, 블록 코딩하는 방법을 실습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탄소중립과 연관된 이미지를 제작하는 공모전을 실시, 참여학생들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기수별 20명씩 총 40명을 모집한다. 호남연수원 연구 참여고객이 신청한 경우 고액 감사 차원에서 해당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호남연수원 관계자는 "여름방학 중 AI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진로 탐색에 필요한 초등학교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AI 새싹 인재양성부터 중소벤처기업 AI 대전환까지 호남연수원 최첨단 인프라를 적극 활용, AI 전문교육에 앞장서는 연수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중진공 호남연수원 전경